

양자강을 한입에 마셔?



148 일구흠진 서강수

선의 황금시대는 당(唐) 후반에서 송대(宋代)까지로 약 300년 간이었습니다. 특히 당말에서 송초까지는 선이 한창 꽃을 피우던 시기로 내로라하는 선승들이 많이 배출됐습니다. 이 시대 중국 선에는 양대 산맥이 있었습니다.

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 입에 그 많은 물을 다 집어넣을 수 있을까?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관념의 벽을 무너뜨리고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학자들은 많은 책을 읽습니다. 보통 5000권 이상 가지고 있는데 다 읽은 책도 있고 서문과 목차만 읽은 책도 있습니다. 책 내용을 다 기억하고 있는데 그 많은 책이 어떻게 머리에 다 들어갈 수 있을까? 설사 목차만 읽는다고 해도 양적(量的)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요점만 기억해 둔다면 5000권이 아니라 만권도 가능합니다.

양자강의 물을 정말 한 입에 다 마셔야 하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그는 석두(石頭)입니다. 물리적으로 한 바가지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관념의 벽을 무너뜨리면 양자강 물은 딱 한 컵이면 족합니다.

관념의 벽 · 마음의 문 열면 진리에 합치 '일즉다 다즉일' '사사무애관' 과 통하는 가르침

마조도일(馬祖道一, 709-788)과 석두회천(石頭希遷, 700-790) 선사였습니다.

양자강을 중심으로 마조 선사는 강 서쪽에 있었고 석두 선사는 강 남쪽에 있었습니다. 유명한 선승이 강을 중심으로 양쪽에 포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많은 잠선자들은 강서와 강남을 오가며 공부했습니다. 훌륭한 스승 밑에 훌륭한 제자가 나온다는 말처럼 훗날 그들의 문하가 중국 선을 위락시켰음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 당시 또 방 거사(龐居士, 龐蘊 · ?-808)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스님이 아닌 거사의 신분이었지만 깨달음의 문제에 있어서는 유명한 선승들과 비교해도 하나도 꿀릴 것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방 거사가 깨닫기 전 어느 날 석두 화상을 찾아가 다음과 같이 물었습니다.

"선사, 만법과 더불어 짝하지 않는 존재는 무엇입니까(不與萬法爲侶者 是甚麼)?"

그러자 석두 스님은 손으로 열린 방 거사의 입을 막았습니다. 선의 진리는 함부로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방 거사는 확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는 다시 강서 지역에서 이름을 날리고 있던 마조 스님을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선사, 만법과 더불어 짝하지 않는 존재는 무엇입니까?"

마조 선사가 대답했습니다. "일구흠진서강수(一口吸盡西江水)"

이 말에 방 거사는 또 크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일구흠진 서강수'란 '한 입에 서강의 물을 다 집어넣다'는 뜻으로서, 만일 그대가 한 입에 양자강의 물을 다 집어넣을 수 있다면 만법과 더불어 짝하지 않는 존재가 누구인지 말해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서강(西江)은 양자강입니다.

아무리 입이 큰 사람이라고 해도 주먹 하나 정도 이상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양자강은 커녕 개울물 한 컵만 마시면 양자강의 물을 다 마신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불교어 중에는 '작은 겨자씨 속에 우주를 다 집어넣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겨자씨 속에 우주를 집어넣을 수 있을까? 또 우리가 잘 아는 <화엄경>에는 "하나가 곧 모든 것이요(一即多), 모든 것이 곧 하나(多即一)" 그리고 "일체는 오직 마음이 만들어 낸 것이다(一切唯心造)"라는 말도 있습니다. <화엄경>의 이 말과 같이 하나 속에 모든 것을 다 넣을 수 있다면, 한 입에 양자강 물을 다 넣는 것도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을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제치면 온 천하도 내 손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확실히 말씀드리자면 그 사람의 마음을 잡으면 그 사람을 갖는다고 합니다. 관념의 벽, 마음의 문이 열려 있으면 커다란 우주도 내 것이 됩니다. 원수도 용서합니다. 그러나 마음의 문이 닫혀 있거나 관념의 벽이 가로막혀 있으면 작은 겨자씨 하나도 들어갈 공간이 없습니다. 원수는 커녕 약간의 불쾌한 말도 용납하지 못합니다. 아주 작은 일에도 분노하는 것은 마음이 닫혀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 용심(用心) 여하에 따라서 이 세상이 내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음의 크기는 무한대이기 때문입니다. '일구흠진 서강수'는 화엄사상의 '일즉다 다즉일(一即多 多即一), 하나는 곧 모든 것이요 모든 것은 곧 하나이다' 그리고 '사사무애관(事事無礙觀, 사물과 사물 간에도 걸림이 없다)'과 '일체유심조'의 관점에서 이해하기 바랍니다. 이제 남은 관건은 양자강의 물을 한 입에 다 집어 넣어도 양자강의 물이 줄어들지 말아야 하고, 또 입이 터진다거나 배가 불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유심(有心)으로 마시면 배가 터지고 강물은 바닥이 나게 될 것이고 무심으로 마시면 물도 배도 모두 그대로일 것입니다. ■윤창환 민족사대표

모두 부처님처럼 섬기면 진정한 보살행 시작돼

최근 조계종 중진스님이 노스님을 폭행하고 강원에서는 치문반 확인스님이 상급반 스님을 경찰에 고소하는 등 승풍실추 사건들이 잇따르고 있다. 또 극한 대치와 폭력으로 얼룩진 입법전쟁은 국민의 가슴까지 멍들게 했다. 나라밖에서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공격해 무고한 시민들이 죽음을 당하고 있다.

지구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폭력과 전쟁은 왜, 무엇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가. 이는 나라의 생각, 내가 최고라는 생각이 떨어져 우리 마음속에 잠복해 있는 탐욕, 분노, 어리석음의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기 때문이다.

곡식은 익으면 고개를 숙이고, 빈 그릇도 차면 무거워진다. 야만은 겸손이란 그릇이 채워지지 않을수록 오고, 겸손은 공경의 이삭이 여물지 않을수록 떨어진다. 겸허한 자는 자기의 지혜와 덕을 알아 모든 이를 수순할 수 있으므로 꾸미지 않은 겸손한 자세가 몸에서부터 나타나 타인으로부터 신의를 얻게 된다. 또 존재에 대한 감사와 남의 인격을 나의 인격처럼 존중하고, 모든 중생을 부처님 섬기듯 공경심을 갖고 대함으로써 진정한 보살행이 시작된다. 공경과 보살행은 남보다 나은 내가 아니라, 상대의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는 데서 시작된다. 부처님 말씀을 토대로 스스로를 낮추고 마음에 빈자리를 남겨 놓아 여유를 가지므로써 겸허의 인의(仁義)를 생활에서 몸소 실천해 보자.

#부처님이 뼈 무더기에 예배한 까닭은?

"세존이시여, 아래께서는 삼계(三界)의 거룩한 스승이시며 사생의 자부이신 아버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께 귀의하고 공경하옵기를 어찌하여 마른 뼈에 예배하옵니까?"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여기 이 마른 뼈 한 무더기는 어쩌면 내 전생의 조상이거나 여러 생을 거치는 동안의 아버지일 것이므로 예배하는 것이다." <부모은중경>

#진리 알면 어떤 견해도 충돌하지 않아

"이것만이 진리다"라고 자기 입장만을 고집하며 말싸움을 거는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 이렇게 말하라. "그대가 아무리 말싸움을 걸어도 그대를 상대해 줄 사람은 여기에 없다."

사람들은 제각기 다른 견해를 고집하면서 싸우고 있다. 스스로 '진리를 아는 자'라 자칭하며, 각기 다른 견해를 품고서 "너는 어리석은 자다. 아직 진리에 이르지 못했다"고 비난한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누구의 말이 과연 진실한 말인가. 자기 견해만을 고집하고 상대방의 견해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자야말로 어리석은 자, 무식한 자가 아니겠는가. 만일 상대방이 자기를 어리석은 자라고 말했다기 때문에 정말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라면 그렇게 말한 사람 자신도 상대와 함께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자신을 '진리를

지구촌 각종 분쟁 마음속 탐진치로 세상 보기 때문 있는 그대로 상대를 인정하는데서 공경심 생겨나

아는 자'라 칭한다면 이 세상에 어리석은 자는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숫타니파타>

#은혜를 몰라 서로 원수같이 대하고

세간의 중생들은 보은할 줄 모르고 다시 서로 원수같이 대하며, 사면에 집착하여 미혹·전도하며, 어리석고 슬기롭지 못해서 신심이 없고 악무를 따르며, 여러 분별심을 일으켜 무명을 탐하는 까닭에 갖가지 번뇌가 다 활대로 차게 되는 것이다. 온갖 중생은 모두 이같이 열 가지 번뇌에 의해 갖가지 악을 안 짓는 것 없이 짓고 있는 것이니, 그러기에 각기 서로 공경하지 않으며, 서로 존중하지 않으며, 서로 따르지 않으며, 서로 겸손하지 않으며, 서로 이렇지 않으며, 서로 아끼지 않으며, 다시 한 걸음 나아가 서로 살해까지 해 상호간에 원수가 되어 있다. <화엄경>

#욕하고 비방하고 때려도 노하지 않으며

"만약 어떤 사람이 욕하고 비방하며, 몽둥이로 때리고 살을 도려내어 그 몸을 괴롭게 하여 목숨이 끊어지기에 이른대도, 이 일 때문에 어지러운 마음이나 노여운 마음을 일으키지 않으며, 또한 뜻이 물러서지 않아 대비홍서(大悲弘誓)를 더욱 강화해서 후식이 없어야 한다." <화엄경>

"사람이 있어서 칼을 들고 노하여 여래(如來)를 해하려 한 대도, 여래께서는 기쁜 마음을 잃지 않으사 노하지 않으시다." <열반경>

#억울함을 수행의 문으로 삼으라

"그는 나를 욕했다. 그는 나를 때렸다. 그는 나를 이겼고, 그는 내 것을 앗아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마음으로부터 영원히 벗어날 수 없다." <법구경>

"억울함을 당해서 밝히려고 하지 마라. 억울함을 밝히려는 원망하는 마음을 들게 되니나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시되 '억울함을 당하는 것으로 수행하는 문을 삼으라' 하셨느니라." <보왕삼매론>

#겸손으로 살피고 공경으로 존중하라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무엇 세 가지가 있으니, 건강 · 안온 · 장수가 그것이다. 이를 성취하는데는 세 가지 방법이 있으니 부처님께 귀경하고, 법에 귀경하고, 승에 귀경하는 일이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먼저 겸손으로써 자기 자신을 살필 줄 알고 공경성으로 남을 존중할 줄 알아야 한다." <십이인연경>

#보살은 자신 낮추고 은혜 베풀다

"보살은 자신을 낮추고 남에게 은혜를 베풀며 겸손과 공경으로 스승을 따르며, 또 사람들로 하여금 이를 터득하여 보존케 한다." <수호국계주경>

#진리 생각하는 마음으로 중생 보호하라

"성내고 해치려는 생각을 없애고 늘 사랑하는 마음을 간직하라. 연민하는 마음으로 중생을 돌아보고 자비로운 생각으로 눈물을 흘려라. 크게 기뻐하는 마음을 두고 익혀 스스로가 얻은 것처럼 기뻐하라. 진리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중생을 보호하면 그 계 바로 보살의 행이니라." <현유경> 이상언 기자

아바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밤은길 아바타 센터
 전회주사는 본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지금이야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아바타 마스터 김희곤
 ●전회문의 상담 환영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45-3
 전화 010-6230-2113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heegyun@avatar21.com

大韓佛敎 曹洞宗 任員公告

宗正: 智明, 德瓚 僧正院長: 恒帝, 德周

總務院長: 大隱, 德牛 中央監察院長: 德性, 行性 中央宗會議長: 海倫, 行峰

中央教育院長: 光慧	忠北宗務院長: 日長	僧正委員: 圓峰	監察部長: 慧明
中央護法院長: 慧泉	忠南宗務院長: 法空	僧正委員: 法空	布教部長: 素圓
中央布教院長: 優潭	嶺東宗務院長: 慧空	僧正委員: 慧空	文化部長: 月峰
禪院長: 眞一	慶南西宗務院長: 法光	僧正委員: 清潭	總務局長: 惺云
中央律院長: 雲潭	慶南中宗務院長: 慧山	副院長: 眞法	教務局長: 月光
中央宗會副議長: 雲性	嶺南宗務院長: 清潭	總務部長: 古牛	財務局長: 清淨
中央宗會副議長: 知遠	慶北宗務院長: 雲鶴	財務部長: 法蓮	社會局長: 圓光
서울宗務院長:	南海宗務院長: 清雲	教務部長: 海權	糾正局長: 松潭
京畿宗務院長: 法空	釜山宗務院長: 道一	糾正部長: 道弘	文化局長: 平潭
江原宗務院長: 慧覺	僧正副院長: 心明	社會部長: 慧山	監察局長: 道賢

불기 2553년(2009년) 1월

바로 잡습니다
현대불교신문(714호) 6면(대한불교조동종)
원광대학교 문인에서 승정원장 황유광
황유광 바로 잡습니다.

출강 및 통신 2009학년도 제18기 법사학인 신입생 모집

법사교육 신입생 모집

불교법사로서 자격과 능력을 갖추어 보십시오.

18년 역사와 함께 불교지도자인 법사로서 자격을 여법히 갖추시고 포교활동을 희망하시는 불자님을 대상으로 2009학년도 제18기 법사학인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모집과정 •법사과정 •대법사과정 •불학연구원과정
교육학반	•출강반 •통신반
입학자격	•불심이 돈독한 분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분 •교육수로 후 법사활동을 희망하는 분 •포교원 및 사찰을 개원하려는 분 •불교지도자로서 사회에 봉사하려는 분
제출서류	입학원서 1부, 사진 1매, 주민등록등본 1부
교육기간	•법사과정 = 1년 (교과목 및 불교의식) •대법사과정 = 2년 (교과목 및 불교의식) •불학연구원과정 = 5년 (교과목 및 참가수행)
교육장소	•서울 본 대학 •부산 교육원 •제주 교육원

- ◆원서 교부 및 접수: 2009년 2월 25일까지(현재 접수중)
- ◆원서 교부 및 접수처: 본 대학 사무국(우편·팩스 접수가능) 부산교육원(☎051-466-1959)·제주교육원(064-751-1959)

입학안내 02)720-1836 733-1959

한국 불교 법사 대학
서울특별시 종로구 경자동 110-39번지(한선빌딩 3층)
http://pubsa.buddhism.org / 팩스 02)737-5305